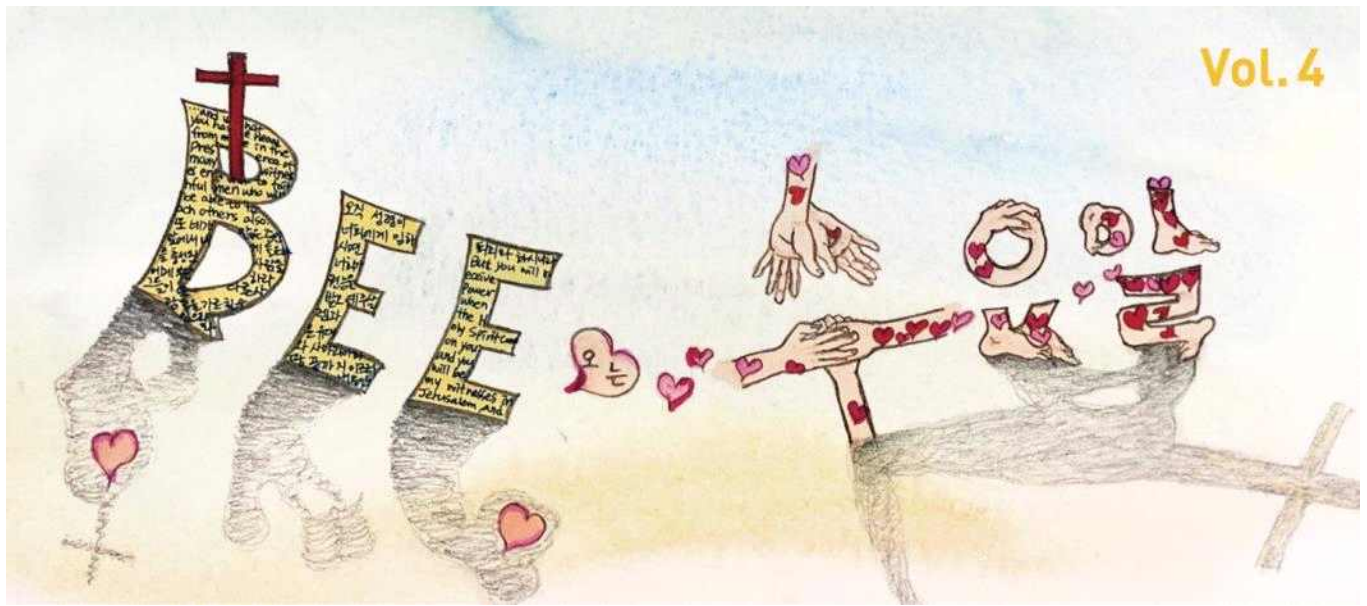




열여섯번째 이야기

[2019 선교사 사역현장④]

쉬지 않으시는 손길을 따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행9:15~16)



올해로 선교사로서의 삶이 20년의 세월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았지만 교회와 예수님은 들어보지 못했던 불교집안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청소년 때부터 마음속에 심겨진 순수함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여 청년 때에 참석한 목요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내가 찾던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 영혼의 눈을 뜨게 되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렇게 저와 주님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생명의 삶으로 QT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부르신 동일한 말씀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을 것이라’(행9:16)라는 말씀을 저는 비장하고도 급박한 마음에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확인 시켜주시고 선교 준비를 위한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분에 넘치도록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지로 가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로 너무나도 큰 사역들을 하게 해주셨고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수단에서 현지인과 동역자들 간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사역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선교지에서의 추방, 불모지인 새로운 사역지 남수단의 개척 사역 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인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2003년부터 BEE를 시작한 이후, 주님의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로 2006년에 특별 FTS를 받았고 2007년부터 수단에서 BEE 협력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DPM 12명의 1회 졸업식과 재생산 중에 13년간 사역하며 섬겼던 수단에서 2013년에는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고, 그 가운데 저의 건강 상 감당할 수도 없는, 전기와 물도 없고 황폐하고 척박하고, 거주지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전까지 발발한 곳에 오직 BEE 사역으로 현지 교회들을 복음의 진리로 세워 교회가 견고케 되는 것이 오직 남수단이 살 길이라는 뜨거운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확증 속에 발걸음을 옮겨 남수단에서 지금까지 BEE 협력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국민 40%가 난민으로 국내외로 흩어졌고, 60% 이상이 식량의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들의 놀라운 고백들과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DPM을 초교파적(성공회, 장로교, 복음장로교, AIC, 순복음교 등)으로 수도 주바와 서부지역 마리디에서 각각 37명, 20명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뒤를 이어 훈련받는 그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생산하는 플로라 자매

BEE 현지선교사 패트릭이 세워졌고, 인도자 플로라와 채플린도 재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어 평화가 오면 남수단의 각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역하게 될 것을 꿈꾸며 모두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장소를 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무 밑에서 하기도, 화장실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점심을 준비할 수 없어 굶을 때도,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 쉽게 걸리는 질병들과 때로 총알이 날아가는 속에서도, 교통수단이 없거나 때로 교통비가 없어서 2~3시간을 걸어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7시간을 걸어 와서 세미나에 참여

하기도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에는 비닐로 성경과 교제만 돌돌 싸 들고 흠뻑 다 젖은 채로 오기도 하고, 매 세미나마다 전기가 없는 무더위 속에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다 젖어 마치 한증막에 있는 것처럼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성경책을 펼쳐 말씀을 찾고 세미나에 임하는 이들을 볼 때에는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계란, 땅콩, 빵, 침대시트, 감사헌금 등으로 저를 격려해 주어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달 새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7년의 내전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쁘고, 전적 후원으로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모든 교회훈련 행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에서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BEE 사역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역가운데 1년 넘게 아니 6년 전부터 두드리고 함께 중보기도를 했던 성공회 주바 교구에서 드디어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새롭게 성공회 대주교가 되신 저스틴 목사님은 저를 ‘my friend’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토릿이 있는 동부지역 성공회 감독에게도 친히 전화를 걸어 연결을 해주시는 등 주님의 격려하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성공회 대주교 저스틴 목사님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모든 상황을 건디며, 오직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서고자 싸우는 저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검은 색 피부를 가진 나라 중에 유일하게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인 수단에서 40여 년간의 남북내전 끝에 2011년 분리 독립한 남수단은 2013년에 발발한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맺은 1차 평화협정이 2016년에 깨져 더 확산된 내전 중에 2018년 9월 2차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2019년 5월 12일 연합정부출범 계획이 6개월 연장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는 남수단의 국민들은 800% 인플레이션 속에 점점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수단에 속히 내전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전쟁 속에 태어나 자라 어른이 되어도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의 험악한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정은희 선교사, 편집: 최선 ‘BEE수’ 기자]

BEE의 보석 찾기

16. 이경숙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살 길이 막막할 때, 가족들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새벽기도를 하며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순모님께서 기도하다가 제가 장정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격려로 저의 영혼은 더욱 굳세어졌고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해쳐 나갔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조카사위가 ‘고모 대단해요! 엄청나요! 멋져요!’ 하더라고요. 이제는 가족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를 강력한 군병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OBC를 찾았고, 말씀이 좋아서 더 탐구하고자 BEE를 시작했습니다. BEE는 저에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늦은 시간의 축복입니다.

양재BEE 기도모임 본부테이블에서 기도하고, 양재 새신자 예배를 10년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은 장성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7.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손녀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을 수강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 할머니!! 2019 '말씀을 행하라'라는 BEE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권사님이 양재 토요BEE 기도모임에 있어요.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6월, 말씀을 행하라 '관용,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공평하게 다른 사람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속성'에 따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6월 되소서.
2. 7월 8일(월) HOME COMING DAY! 25주년을 맞이하는 BEE KOREA! 감사와 은혜의 25년 BEE KOREA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25년을 맞이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 8월 30일(금)-9월 2일(월) 양재 BEE기도모임에서 일본 아웃리치를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바다 건너가는 양재 BEE기도모임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